

敬天·修道의 現代的 意義

李 恒 寧 *

目 次·

I. 머리말	6. 甌山의 天觀
II. 天이란 무엇인가	III. 敬天이란 무엇인가
1. 自然的 存在로서의 天	IV. 修道란 무엇인가
2. 自然法則으로서의 天	V. 敬天·修道의 現代的 意義
3. 自然的 主宰者로서의 天	1. 人類는 안으로 돌아가야 한다.
4. 中國人의 天觀	2. 人類는 참된 幸福을
5. 韓國人의 天觀	찾아야 한다.

I. 머리말

대순진리회의 종지는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인데 그 종지를 이루기위한 신조로서 안심·안신·경천·수도의 4강령과 성경신의 3요체가 있다.

4강령중의 안심 안신에 관해서는 본 논총 제7집에서 소견을 밝혔고 이번 호에는 4강령 중의 나머지 두 개의 경천 수도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경천에 관해서는 대순진리회의 요람에 「경천은 상제님 받드는 마음을 자나깨나 잊지말고 항상 상제께서 가까이 계심을 마음에 새겨두고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것」 이라고 했고 정대진 대진대학교 이사장은 「경천이란 신을 공경한다는 뜻인데 신의 존재를 믿지 않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참다운 종교인이라고 할 수 없다」 하고 「신은 인간 초월적이면서 인

* 홍익대 명예교수, 법학박사

간의 내재적인 심성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경천의 자세는 항상 신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상제를 신앙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수도에 관해서는 대순진리회의 요람에 「수도는 마음과 몸을 침착하고 청심(淸心)하여 상제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정신을 모아서 단전(丹田)에 연마하여 영통(靈通)과 통일을 목적으로 하라」고 했고 정대진 이사장은 「수도는 상제의 대순하신 진리를 실천수행하는 사람의 몸에 구현하게 하는 것으로 인간이 본래 태어날 때는 어떠한 사욕이 없는 청정무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자라나면서 환경의 영향이나 물욕으로 탁해지는 것을 수도를 통해 바른 모습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천은 상제님을 받드는 것이요 수도는 상제님을 가까이 모시는 것인데 경천으로 상제님을 받드는 것은 상제님이 계심을 마음 속에 새겨서 정성을 다하는 것이요 수도로 상제님을 자기 몸에 가까이 모시는 것은 단전을 연마하는 것이다.

신조의 4강령(안심, 안신, 경천, 수도)와 3요체(성경신)은 종지(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을 이루기 위한 노력인데 신조가 강하면 종지의 해득(解得)도 빠를 것이요 신조가 약하면 종지의 해득도 느릴 것이므로 신조는 굳게 믿고 행하여야 한다.

4강령의 안심 안신으로 먼저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다스린 후에 경천하여 상제님을 공경하고 수도하여 상제님을 모시게 되는데 마음과 몸이 다르지 않고 하나를 이루듯이 상제님과 자기 몸이 다르지 않고 일체를 이루어서 경천이 곧 수도가 되고 수도가 곧 경천이 된다. 그러나 원래가 하나인 마음과 몸이 일단은 다르게 나타나듯이 상제님과 자기 몸도 일단은 구별하게 된다.

하나이면서 둘이 되고 둘이면서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은 구별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II. 천(天)이란 무엇인가?

1. 자연적 존재로서의 천

우리는 거대한 우주 가운데의 하나인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 우주를 하늘이라 하고 지구를 땅이라 하고 그 땅위에 사람이 살고 있다.

우주는 실로 무한대로 큰 존재이다. 낮에는 푸른 하늘과 태양이 보일 뿐이지만 밤에는 달이 뜨고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주 외에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우주가 있다. 우주가 언제 어떻게 생겼으며 그 우주가 얼마나 큰지는 아직 확실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무한대의 넓이로 존재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이 무한대의 우주를 우선 자연적 존재로서의 우주라 할 수 있다.

자연적 존재로서의 우주는 우리가 「하늘」이라고 한다. 자연적 존재로서의 하늘은 눈에 보이는 것이나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그저 자연이 존재하는 우주현상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다.

2. 자연법칙으로서의 천

우주 즉 자연적 존재로서의 우주에는 해가 뜨고 달이 지고 춘하추동이 있는 등 일정한 현상이 규칙적으로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다. 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실로 질서가 정연하여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 우주에 존재하는 이와 같은 법칙을 하늘의 본체로 보았다. 그것은 바로 자연법칙(自然法則)이요 천도(天道) 천리(天理)라고 했다. 사람들은 현상적으로 보이는 높은 하늘속에서 일어나는 이와같은 자연법칙을 경탄하면서 그 자연법칙을 찾기 시작하여 많은 자연법칙을 발견해냈다. 가령 해는 아침에 동에서 뜨고 저녁에 서로 진다든지 춘하추동이 규칙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을 알아 그 자연법칙에 순응하여 나가는 지혜를 터득하기에 이르렀다.

인류가 유사이래 발견해낸 자연법칙은 엄청나게 많고 그 덕분으로 사람들은 그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생활을 원활하게 운영하여 왔다. 특히 서방인들

이 자연을 면밀히 관찰하여 물리학과 천문학을 발달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법칙은 순수한 자연법칙이요 인간의 윤리법칙과는 다르다. 자연법칙은 원인과 결과의 인과율(因果律)의 지배를 받을 뿐이요 인간이 규범(規範)으로 만들어낸 윤리법칙과는 다르다. 규범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법칙과는 달리 인간의 필요성에 의하여 마땅히 있어야 할 당위(當爲)사항으로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3. 자연의 주재자로의 천

천은 첫째로 가시적(可視的)인 자연의 존재를 의미하고 둘째로는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이치(理致)로서의 자연법칙을 의미하는데 사람들은 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한 자연적 존재가 있고 그러한 자연법칙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한 생각 끝에 사람들은 이 우주에는 눈에 보이는 자연적 존재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어서 이 우주를 창조하고 우주를 법칙대로 움직이며 우주만물을 지배하는 주재자(主宰者)가 있다고 생각했다.

우주는 처음에는 가시적인 존재였으나 그 가시적인 존재 가운데 법칙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 법칙을 좌우하는 주재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우주는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하늘」이었으나 다음에는 그 하늘에 법칙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천도」나 「천리」를 알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그 하늘에는 주재자가 있어서 그 주재자의 뜻대로 우주가 운영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하느님」 「상제님」 「신」의 관념이 생기게 되었다.

천도나 천리로서의 자연법칙은 원래가 자연법칙이요 윤리규범과는 다른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우주의 주재자로서의 하느님이나 상제나 신을 인정하게 되면서 자연법칙도 우주의 주재자의 의지대로 일어나는 것이요 그 우주의 주재자는 윤리적인 존재일 것이므로 자연법칙도 윤리규범과 합치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가령 벼락이 치는 것은 순전한 물리현상으로 음전기와 양전기의 충돌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하느님을 인정하면서 부터는 그 벼락은 하느님의 의지에 따라서 악한 자에게 떨어지는 것이라고 윤리적 해석을 하게 되었다.

자연법칙으로의 천도나 천리는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없이 어느때나 어느 곳에서나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자연의 주재자로서의 하느님이나 상제님이나 신으로서의 천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같지않다. 우주의 주재자로서의 하느님이나 상제님을 다같이 인정을 하지마는 각 민족의 생활환경의 차이에 따라 그 하느님의 성격이 동일하지 않다. 각 민족의 윤리규범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각 민족이 인정하는 우주의 주재자로서의 하느님은 대개 그 민족성을 반영하는 수가 많고 민족성은 그 민족이 살아온 역사와 환경에 의하여 결정되는 수가 많다. 만일에 우주 주재자로서의 하느님의 성격도 자연법칙과 같이 세계보편성이 있어서 민족에 따라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면 지금까지의 인류의 분쟁도 훨씬 적었을 것이다.

천에는 이와같이 자연현상으로서의 단순한 물리화적인 천과 자연법칙을 의미하는 철학적인 천과 자연의 주재자를 의미하는 종교적인 천의 세가지 뜻이 있다.

천에 대한 이와같은 물리학적 철학적 종교적 의미는 각 민족에 따라 그 인식정도에 차이가 있다. 자연현상으로서의 천(하늘)은 대개 어떤 민족도 비슷하게 느껴 질 것이요 그 다음으로 자연법칙으로서의 철학적인 천도나 천리는 민족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관찰력이 강한 민족은 일찍부터 자연법칙을 발견하여 그것을 생활에 이용하므로써 그 생활을 윤택하게 하였겠지만 관찰력이 부족한 민족은 그 자연법칙의 인과율적(因果律的)인 필연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필연적 자연법칙도 어떤 초자연적인 주재자의 의사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일찍부터 자연법칙을 발견한 민족은 합리적인 과학적 생활을 하였으나 그 자연법칙을 인과율적인 필연성에서 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민족은 합리적인 생활보다 비합리적인 미신생활을 하게 되었다.

자연법칙으로서의 천에 관해서 민족의 인식정도에 다소의 차가 있는데 비하여 자연주재자로서의 천에 관해서는 민족에 따라 그 인식정도에 대차가 있다. 자연법칙으로서의 천에 관한 인식은 그 민족의 문화정도에 따라 문화가 발달한 민족은 자연현상을 보고 자연법칙을 알아내는데 빠르는데 비해서 문화정도가 낮은 미개한 민족은 자연현상을 보고 자연법칙을 알아내지 못하

고 모두 초자연적인 주재자의 의사로 들렸다. 그리고 주재자로서의 천은 각 민족의 심성과 생활풍습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천(天)에는 자연적 존재로서의 천, 자연법칙으로서의 천, 자연의 주재자로서의 천의 세가지 의미가 있으며 자연적 존재로서의 천은 민족에 따라서 크게 다를 것이 없고, 자연법칙으로서의 천은 각 민족의 관찰력과 사고력의 차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달이 뜨는 현상은 지구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지만 지식수준이 높은 민족은 일찍부터 그것을 법칙으로 생각하였지만 지식수준이 낮은 민족은 좀처럼 법칙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능금이 나무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수만년전부터 사람들이 보고 있었지만 그것이 지구의 인력(引力) 작용에 기인한다는 것은 뉴턴(Newton)이 비로소 발견한 법칙이었다. 자연현상에서 일찍이 법칙을 발견한 민족은 그 법칙을 이용할 줄 알아 생활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자연법칙으로서의 하늘보다 더욱 민족의 차가 심한 것은 자연의 주재자로서의 천에 대한 생각이다. 과학적 사고가 발달한 민족은 자연현상은 자연법칙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한 자연법칙을 아직 알지 못한 민족은 모든 자연현상이 자연의 주재자로서의 천이 마음대로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이다. 미개민족에게는 윤리적 의식이 덜 발달되어 주재자로서의 천의 의지가 그저 자의적(恣意的)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윤리적 의식이 발달된 문화민족은 자연의 주재자로서의 천을 윤리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자연의 주재자를 인정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그것이 하느님, 신이다. 그 하느님이나 신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자연현상이나 자연법칙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유신론(有神論) 또는 관념론(觀念論)의 입장이고 그러한 하느님이나 신을 인정하지 않고서도 자연현상이나 자연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무신론(無神論)의 입장이다. 이런 의미에서는 고대에서는 인류가 모두 유신론이나 관념론의 입장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중국인의 천관

농경생활을 하던 중국인들이 일찍부터 자연의 혜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연을 신성시하고 그 천은 의지를 가지고 있어 천명(天命)이나 천의(天意)를 이루며 그와 같은 의지의 소유자 즉 자연의 주재자를 상제(上帝)라고 불렀다.

중국인들이 자연의 주재자를 상제로 생각한 것은 일찍부터 있던 일로서 시경(詩經)이나 서경(書經)에도 이미 나타나 있다. 주재자로서 천은 그 뜻을 펴기 위하여 천자(天子)를 지상에 보내는데 그것이 국가의 통치자다. 천은 천자를 보내어 국가를 통치하는데 천은 그 통치가 천의에 합당한지 여부를 늘 감시한다. 만약에 통치자가 하늘에 뜻을 어기면 하늘은 다른 통치자를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혁명(革命)이다.

고대로부터 중국인은 종교적인 주재자로 생각하였지마는 이성과 상식을 존중하는 공자(孔子)의 입장에서는 주재자로서의 천을 그냥 믿기가 어려웠다. 주재자로서의 천은 신봉하면 모든 것이 숙명적(宿命的)으로 되어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공자의 윤리감을 희석시킬 가능성이 있고 또 자칫하면 인간의 이성을 무시하는 미신에 흐를 위험성도 있으므로 공자는 주재자로서의 천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공자는 「괴상한 것, 폭력적인 것, 혼란스러운 것, 귀신에 대해서 별로 말을 하지 않았다.(子不言怪力亂神)」고 하였는데 그중 신(神) 가운데에는 천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공자는 합리적 사상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것은 좀처럼 믿지 않았다. 공자는 자기의 평생을 돌아다보고 「나는 열다섯살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 삼십살에 독립적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십살에 현혹되지 않았고 오십살에 천명을 알았으며 육십살에 들리는 것이 귀에 거슬리지 않았고 칠십살에 하고 싶은 대로 하여도 규범을 넘지 않았다」(子曰 吾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 - 論語 爲政篇)고 하였는데 오십에 가서 알았다는 천명(天命)은 자연법칙으로서의 천보다는 자연 주재자의 천을 의미한 것 같다. 공자 자신은 자연의 주재자로서의 천으로부터 어떠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것을 제자들에게 강조하지는 않았다. 그가 송(宋)나라에 있을 때 대사마환퇴

(大司馬桓魋)로부터 장차 해를 받게 될 때 공자가 「하늘이 덕을 나에게 내렸다. 환퇴가 나를 어찌하겠느냐?」(天生德於予 桓魋其如予何—論語述而篇)고 말한 것은 공자가 하늘에 대하여 종교적 신념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또 광인(匡人)이 군사를 가지고 공자를 둘러싸서 몸이 위협스럽게 되었을 때 공자가 「문왕이 이미 돌아가서 문물이 이제 없어졌단 말인가? 하늘이 장차 이 문물을 없애고저 하면 나중사람은 이 문물에 참여하지 못하겠지마는 하늘이 이것을 없애고저 아니 한다면 광인이 나를 어찌하겠느냐(文王 既沒 文不在於茲乎. 天之將喪斯文也. 後死者 不得與斯文也. 天之未喪也 匡人其如予何—論語 子罕篇)고 외친것도 공자가 천지주재자로서의 하늘은 인정하는 것이다. 공자는 하늘을 자연적 존재나 법재적 존재 이상으로 주재적 존재로 인식한 것이 분명하다.

유교가 송대로 들어와 성리학(性理學)으로 발전됨에 따라 천에 대한 종교적 의식은 많이 사라지고 오직 철학적으로 천리, 천도로서의 천이 강조되었다. 특히 중용(中庸)에 「천명을 성이라 하고 성에 따르는 것을 도라 하고 도를 닦는 것을 교라고 한다」(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고 하여 천명을 인간의 내심에서 찾게 됨으로 종교적인 천의 개념보다도 태극(太極)이니 음양(陰陽)이니 하는 철학적인 관념이 많이 논의되게 되었다. 성리학에서는 천보다 인간의 심성이 더욱 중요시 되었다.

고래로 중국인이 대체로 주재자로서의 천을 믿고 있던 것 같다. 특히 통치자층에서는 자기의 통치권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자기를 하늘의 아들 즉 천자(天子)로 생각하고 그 천자로서의 특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천자가 제천권(祭天權)을 독점해왔다.

5. 한국인의 천관

한국인은 일찍부터 자연주재자로서의 천을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제천(祭天)의식을 가졌다.

중국사람은 사람은 누구나 경천(敬天)할 수는 있어도 아무나 제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중국사람은 상제로서의 천은 그 사명을 현실국가의 주재자인 천자(天子)에게 맡겼으므로 천자만이 제천할 수 있고 일반 서민은

천자의 명령을 따르므로써 하늘의 명에 따르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우리 한국사람은 다 하느님의 자손 즉 천손(天孫)으로 생각하고 천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제천권(祭天權)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을 중국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과 대단히 다른 것이었다. 중국문헌인 삼국지 위지 동이전 부여조(三國志 魏志 東夷傳 夫餘條)에 보면 「정월에 제천하는데 나라가운데 큰 모임을 하고 매일 음식하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이것을 영고라고 한다.(正月祭天 國中大會 連日飲食歌舞 名曰 迎鼓)고 하였고 고구려에서는 동맹(東盟)이라고 하였고(後漢書 東夷傳 高句麗條一以十月祭天 名曰東盟一 三國志 魏志 東夷傳 高句麗條一以十月祭天 國中大會 名曰東盟) 마한에서도 제천을 하는데 각 국읍(國邑)에서 한사람을 뽑아서 천신께 제사 지내는데 그를 천군(天君)이라고 한다고 하였다.(後漢書 東夷傳 馬韓條一以五月田畢 祭鬼神晝夜酒會 群聚歌舞… 十月農功畢 亦復如之 諸國邑各以一人主祭天神 號曰天君一 항상 오월에 밭농사의 경작이 끝나면 귀신을 제사지내는데 주야로 술잔치를 하고 여러사람이 모여 노래와 춤을 즐겼고… 십월에 농사일이 끝난뒤에도 역시 이와같이 하였는데 각 읍내에서 한사람씩 뽑아서 천신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를 천군이라고 불렀다)

여기에서 중국인은 고구려나 마한 사람이 제천을 하는데 전국민이 함께 모여서 즐기고 제관은 천자가 아니라 각 동네에서 뽑은 천군이라는 것이 매우 기이하게 여겼던 것 같다.

중국사람은 천자만이 하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자만이 제천권을 독점하여 왔다. 지금 중국 북경에 원구단(圓丘壇)이라는 매우 넓고 큰 제천단이 있지만 그곳에서 제사지내는 제주(祭主)는 오직 천자뿐이었고 다른 사람은 그저 그 제사 지내는 것을 바라볼 따름이었다. 그런데 한국인은 모두가 천손이라는 생각이 있어 국민은 모두 제천권을 갖고 있고 제천의식(祭天儀式)에는 전 국민이 모두 참석하였고 제사를 주관하는 천군(天君)도 통치자가 아니라 각 동네에서 뽑은 사람이다. 오직 천자만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중국 사람의 천관과 모든 사람이 다 하느님의 자손이라는 한국사람의 천관은 중국이 한국을 지배하게 됨으로써 갈등을 일으켰다.

고조선시대 부여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한국에서는 국가의식

으로서 제천을 하는 동시에 이와는 따로 민간에서도 제천행사를 하였다. 국가에서 제천할 때에는 중국의 제천의식을 따라서 천단(天壇)이나 원구단(圓丘壇)을 쌓아놓고 국왕이 제사지냈지만 민간에서는 동제(洞祭)로서 서낭당을 쌓아놓고 제천하거나 또는 집안에서 정화수(淨華水)를 떠놓고 제천하였다.

서낭당은 대개 동네밖이나 산중에 있었는데 본래는 천왕당(天王堂)이나 선왕당(仙王堂)이었다. 큰나무가 있는 곳에 돌로 단(壇)을 쌓놓은 것인데 제단(壇)만 있는 곳도 있고 당집(堂)까지 있는 곳도 있으며 솟대(蘇塗)나 장승이 있는 곳도 있다. 우리나라의 국조인 단군에 관해서는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나와있기 전에 삼국사기(三國史記)에도 나와있다. 삼국사기 권17 고구려본기 동천왕조(高句麗本紀 東川王條)에 「평양은 본래 선인왕검의 집이다」(平壤者 本仙人 王儉之宅也)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선인왕검이 바로 단군이다. 삼국유사에도 단군왕검(檀君王儉)이라고 나와있는데 삼국사기에서 짐짓 단군이라는 말을 피하고 선인이라고 하였지만 선인왕검이 단군인 것은 틀림없다.

그 단군이 기자(箕子)가 조선에 오며 따라 장당경(藏唐京)으로 옮겨다가 뒤에 돌아와 아사달(阿斯達)에 숨어서 산신이 되었다는 것이 삼국유사의 기록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찰에 가면 산신각(山神閣)이 있는데 이 산신각에는 백발노인이 호랑이의 호위를 받고 있는 그림이 있다. 단군과 호랑이와의 관계는 삼국유사에 기록이 있다. 단군의 아버지이신 환웅(桓雄)께서 하늘에서 태백산(太白山)에 내려오셔서 신시(神市)를 세우실 때 호랑이와 곰이 사람이 되고자 원했다.(願化爲人) 환웅께서는 썩한다발과 마늘 스무조각을 먹고 100일동안 굴에 들어가 일광을 보지 말라고 하였는데 곰은 21일을 견디어 여인이 되었고 호랑이는 참지 못하여 사람이 못되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산신도(山神圖)에는 단군이라고 여겨지는 산신(山神)이 호랑이와 같이 있는데 이것은 비록 환웅의 명을 어겼지만 그것을 용서하고 단군의 호위를 맡긴 것으로 여겨진다.

사찰에 산신각이 있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다. 사찰에는 불교의 교주인 석가여래를 모신 대웅전(大雄殿)이나 법당(法堂)이나 금당

(金堂)이 주된 건물인데 거기에 산신각은 언뜻 보아서는 불교와 관계없는 집이다.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국조 단군을 숭상하여 선왕당(仙王堂)이라고 하여 모셔왔을 것이다. 그러자 불교가 들어와서 사찰을 짓게 되자 선왕당 자리가 좋으므로 그 선왕당 밑에 절을 지어 산신각이 절 속에 들어갔다. 이로인하여 우리의 고유신앙인 단군신앙과 불교신앙이 서로 배척하지 않고 공존상생하게 된 것이다. 다른 나라에는 이와같이 종교가 다른 건물이 한데 있는 것이 드물다. 불교가 절을 선왕당 아래에 지으려고 할 때 선왕당속에서 거부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용인한 것도 아름답고 또 불교가 이미 국교(國敎)가 되어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왕당집을 헐어제치고 그곳에 절을 세우지 않고 선왕당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그 밑에 절을 지은 아량도 아름답다. 선왕당 즉 산신각과 사찰과의 공존상생 관계는 유구하게 오늘에 이어져서 그뒤에 새로 절을 지으면 으레히 선왕당 즉 산신각을 같이 지었다.

선왕당을 그 뒤에 「서낭당」으로 불러졌는데 절과는 독립하여 있는 서낭당도 많다. 이 서낭당은 우리 민족의 민간인의 제천당이다.

서낭당은 성황당(城隍堂) 또는 성황사(城隍祠)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조선 왕조 시대에 경도(京都)인 한성(漢城) 즉 오늘의 서울에는 물론이요 각 군현(郡縣)의 읍내에도 성황사가 있었다. 이것은 각 지방을 수호하는 신으로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다. 성(城)은 흙이나 돌로 쌓은 수호벽(守護壁)이요 황(隍)은 성을 둘러싼 방위용(防衛用) 연못이다. 그러므로 성황신은 그 지방을 지켜주는 신이다. 그 성황당이 널리 보급되면서 우리나라의 본래 제천당(祭天堂)인 서낭당과 혼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우리 민족은 역대로 조정에서나 민간에서나 제천을 하였는데 조선왕조때에 이르러 유교의 대의명분론(大義名分論) 때문에 조정의 제천권이 없어졌다. 중국의 예법에는 오직 천자만이 제천권이 있으므로 조선을 독립국으로 보지 않고 다만 하나의 제후국(諸侯國) 정도로 생각한 중국이 조선의 제천권을 인정하지 않고 천단이 아니고 땅의 귀신을 모시는 사직단(社稷壇)의 제사만을 지내게 하였다. 통치자가 그저 대왕(大王)이라고만 부르고 한번도 황제(皇帝)라고 부르지 못한 조선왕조의 말년에 고종(高宗)이 비로소 황제라

칭제(稱帝)하고 제천단인 원구단을 지금의 조선히텔 자리에 세웠으나 일본이 한국을 함방하고나서는 그것조차 없어지고 지금 원구단의 일부인 황궁우(皇穹宇)만 남아있다.

그러나 민간인의 제천의식은 오늘날까지 끊기지 않고 계속되어 내려왔다. 제천의 대상인 천(天)을 처음에는 「복두」 또는 「검」으로 부른 것 같다. 삼국유사에는 환국(桓國) 또는 환인(桓因)이라는 말과 곰(熊) 곰녀(熊女) 또는 단군왕검(檀君王儉)이라는 말이 나온다. 「환」은 桓(곧셀 환)이라는 한자의 뜻과는 관계없이 「환하다」는 음(音)을 취하였고 「단」은 檀(박달나무 단)이라는 한자의 뜻과는 관계없이 「밝다」는 음을 취하여 「환하고 밝다」하는 것이 단군시대의 숭배대상이었을 것 같다. 농경민족인 단군족이 생활에 가장 고마움을 주는 태양을 환하다고 하여 「환한 님」이라고 불렀고 그것이 「하느님」으로 변하여 환인(桓因)으로 표기된 것 같다. 「환하다」는 것은 곧 「밝은 것」이기때문에 「환한 님」이 「밝은 님」이 되고 그것이 단군(檀君)으로 표기된 것 같다. 그러므로 환인이나 환웅(桓雄)이나 단군이라는 호칭은 환하고 밝은 태양을 지칭한 것 같다. 이와같이 환단(桓檀)이 광명을 의미하는데 대해 검(儉)은 암흑(暗黑)을 의미하는 「검다」에서 온 것 같다. 고대인은 태양에서 광명의 기쁨을 느끼는 동시에 그 태양이 지고난 뒤의 검은 밤의 공포도 의식하였을 것이다. 낮에는 태양의 신인 「환인」이 계시지만 밤에는 역시 어둠의 신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광명은 희망을 의미하지만 암흑은 공포를 의미한다. 광명은 하늘에서 오지만 암흑은 그 하늘에서 떨어진 땅에서 생긴다. 암흑을 이겨내는 것이 광명이다. 환웅이 호랑이와 곰에게 인간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백일동안 일광을 보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는 곧 암흑을 체험한 뒤라야 비로소 광명의 가치를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명한 하늘에 대해 암흑의 땅을 대비시킴으로서 하늘의 존재를 더욱 분명하게 하였다. 광명은 희망이지만 암흑은 곧 공포이다. 그 공포는 인간에게 압력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귀신 또는 신령으로 다가온다. 그러므로 「검」이란 말이 힘을 가진 지배자를 의미하게 된 것 같다. 삼국유사에 단군을 「왕검」이라고 하여 「검」자를 넣은 것은 지배자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또 곰(熊)이나 곰녀(熊女)에 나오는 「곰」은 「검」이 전환된 것 같다.

곰녀는 곧 지배자인 여자 즉 여신(女神)을 의미한다. 일본에서 귀신을 「가미」(カミ)라고 하는데 「가미」는 「검」에서 유래된 것 같다. 한국이나 일본에 곰웅(熊)자가 붙은 지방이나 신사(神社)가 많은데 그것은 「동물」인 곰을 의미하기 보다는 「신」(神)을 의미하는 「검」 「가미」에서 온 것 같다.

단군은 광명을 의미하는 환웅을 아버지로 하고 암흑을 이겨낸 검녀(熊女)를 어머니로 하고 태어나서 밝은 쪽의 단군과 검은 쪽의 왕검을 한데붙여 단군왕검이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하느님은 천상에 계시고 그 천상의 혈통을 가진 환웅과 지상의 혈통을 가진 검녀의 결합으로 인간 단군이 출생하여 여기에 천지인의 합일이 성립된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받드는 하느님은 천지인 일체로서의 하느님이다.

6. 증산의 천관

전경 교운 1장 9절에 「신도의 권위가 떨어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천도나 인사가 도수를 어김으로 원시의 모든 신성 불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큰 겁액을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 대법국 천계탑에 내려와 삼계를 둘러보고 천하를 대순하여 이 동토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 미륵불에 이르러 30년을 지내다가 최제우에게 제세대도를 계시하였으나 제우가 능히 유교의 전현을 넘어 대도의 참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갑자년에 드디어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신미년에 세상에 내려왔노라」고 한 것을 보면 증산이 천을 어떻게 생각하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첫째로 상제는 천계(天界)에 계시다. 천계는 구천(九天)이라고도 하는데 우주의 중심부에 해당한다. 천계는 여러 신명들이 사시는 곳으로 되어있고 그 여러 신명의 최고 통솔자가 상제시다. 천계에 여러 신명들이 사시는 점에서 증산의 신관은 다신적(多神的)이다.

둘째로 상제는 여러 신명의 최고 통솔자의 자리에 계시다. 천계의 모든 신성·불·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겁액을 상제에게 하소연하였고 하니 이는 상제가 모든 신명 가운데에도 으뜸의 자리에 계시다는 뜻이다. 이렇게 최고 신을 인정하는 점에서 증산의 신관을 유일신적(唯一神的)이다.

셋째로 상제는 인류와 신명을 구제하는 신이다. 신가운데에는 그저 위협적 존재로 두려움의 대상이거나 또는 심판이나 보복을 하여 재앙을 주는 신도 있는데 증산이 믿는 신은 인류와 신명을 구제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하고 있다. 구제하는 방법은 천지도수가 어긋났을 때에는 그것을 바로 잡고 원한이 깃들여 있을 때는 그 원한을 풀어 해원(解冤)을 이루며 소원이 있으면 그것을 들어주는 등으로 이루어진다.

넷째로 상제는 천하를 대순하시고 삼계를 둘러 보신다. 이는 상제가 어느 국한된 지방이나 어느 국한한 때에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천지인 삼계(天地人 三界)와 과거 현재 미래 삼시(過去 現在 未來 三時)에 영구 보편적으로 존재하신다.

상제는 서양의 천계탑에도 내려오시고 동양의 금산사에도 내려오셔서 동서를 가리지 않는다. 또 구제자로 최제우를 내려보내시기도 하시고 또 직접 내려오시기도 하여 과거 현재 미래를 꾸준히 이어가신다.

다섯째로 상제는 우주만물에 골고루 들어가계시다. 신령계는 물론이요 인류계를 비롯한 천지간에 충만한 것이 상제이다. 전경 교법 3장 2절 「천지간에 찬 것이 신이니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르고 흙바른 벽이라도 신이 떠나면 무너지고 손톱 밑에 가시하나 드는 것도 신이 들어서 하느니라」라고 한 것에서 범신론적(汎神論的)사상을 보인다.

여섯째로 상제는 인간으로 나타나신다. 상제는 천계에 계시지만 삼계를 대순하시기 때문에 천계(天界)에 그대로 계시면서 신명과 인류를 구제하실 수 있지만 몸소 인간으로 화하시어 지계(地界)와 인계(人界)에 강림하시어 직접적으로 구제사업을 하신다. 전경 교법 2장 56절에 「천존(天尊)과 지존(地尊)보다 인존(人尊)이 더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이니라」고 하였는데 본래 천지인이 일체이고 보면 천존이 인존보다 높거나 인존이 천존보다 낮을 까닭이 없다. 신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늘 신은 인간의 우위에 두어온 것이 지금까지의 생각이었는데 인존은 천존보다 더 크다는 증산사상을 지구중심에서 태양중심으로 관점을 180도 전환시킨 서양의 코페르니쿠스(Koperniks)와 같다.

오랫동안 인간은 신의 노예로 살아왔다. 그 신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이

근세의 문예부흥(르네상스)이다. 신의 노예에서 행방된 인간은 신을 무시하고 신이 죽었다고 하거나 심지어는 신이 없다고 하는 유물론이 득세하게 되었다.

증산이 천존보다 인존이 크다고 한 것은 언뜻보아 문예부흥시절의 인간해방사상이나 유물론적 무신론과 비슷한 느낌이 있다. 그러나 증산은 인존 가운데 신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죽은 듯한 신은 죽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건재하고 있는 것을 증산은 밝혔다. 전경 교운 1장 66절에 「천지의 중앙은 마음이다. 고로 동서남북의 몸이 마음에 의지한다」(天地之中央心也 故東西南北身依於心)고 하였으니 천지의 중앙이라는 것은 곧 신이요 상제요 하느님이시다. 천상에서 지상으로 강림한 상제는 인간의 모습을 하시게 되고 상제는 다시 인간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 계시게 된다. 그런 까닭에 천존이 곧 인존이 되고 인존이 곧 심존(心尊)이 된다. 인존사상은 신을 무시하는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강림하시고 인간의 마음속에 깃들인 그 신을 존중하는데서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증산의 인존사상은 최고의 천존사상을 내포하고 있다.

Ⅲ. 敬天이란 무엇인가?

증산의 상제관은 증산자신이 최고 신이면서 인간으로 화하셔서 인간의 마음 속에 계시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증산에게는 세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최고 신적 존재라는 것에서 신앙의 대상이다. 둘째는 증산이 상제의 화신이듯 누구도 마음 속에 계신 상제를 자각하면 상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킨 스승으로서의 존경의 대상이다. 셋째는 우리마음속의 신을 망녕되게 하지 못하도록 인간을 독려하고 감시하는 어른으로서의 측면이다. 따라서 경천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도 자명해진다.

경천의 첫째 길은 우주 최고신의 존재를 믿는 것이다. 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인간이 되고저 하느냐 또는 인간 되기를 거부하느냐의 문제다. 적어도 인간이고저 한다면 신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다. 신은 우주의 중심이 되는 광명이요 지구의 중심이 되는 생명이요 인류의 중심이 되는 사람

이기 때문이다. 우주에 광명이 없이 암흑만 있다면 우주는 이미 우주가 아니다. 지구에 생명이 없이 죽음만 있다면 지구는 이미 지구가 아니다. 인류에게 사랑이 없이 미움만 있다면 인류는 이미 인류가 아니다. 광명을 바라고 생명을 원하고 사랑을 찾는 데서 사람으로 사는 보람이 있는 것이요 그것들이 없다면 다른 동물과 다름없는 존재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주의 광명에 의지하고 지구의 생명에 참여하고 인류의 사랑에 들어가야만 하는데 그 광명과 생명과 사랑의 절정(絶頂)을 우리는 신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에서 광명을 보고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에서 생명을 보고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에서 사랑을 본다.

신이 존재한다는 논증(論證)은 고래로부터 여러 가지 이루어졌으나 인간이 동물로서 만족하지 않고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답게 살려고 하면 어쩔수 없이 광명과 생명과 사랑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러한 높은 가치의 중심점이 신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신을 인정하는 것은 사람답게 살자는 염원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을 믿는다는 것 즉 경천은 첫째로 우주의 광명인 상제를 신앙하는 것이요 둘째는 그 상제가 인신으로 화한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요 셋째는 상제가 깊이 깃들여 있는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다.

천은 우주만물의 중심점이기 때문에 그 중심점에 귀일하지 않고서는 우주만물은 존재할 수 없다. 경천은 바로 우주의 중심으로 귀일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경천사상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정성스러운데 온민족이 스스로 천손으로 생각하고 각자가 제천한 유구한 전통에서 잘 나타나 있다.

IV. 修道란 무엇인가

도(道)라는 말에는 세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사람이 통행하는 길이요 둘째는 사람이 지켜야 할 규범이요 셋째는 우주의 궁극적 원리이다. 첫째는 존재하는 사실로서의 도로(道路)가 되고 둘째는 인간이 지켜야 할 윤리로서 도리(道理)가 되고 셋째는 우주의 근원으로서 대도(大道)가 된다. 첫째는 물리적인 도로 지도(地道)요 둘째는 윤리적인 도로 인도(人道)요 셋째는 종교

적인 도로 천도(天道)다.

물리적인 도로서의 도는 길이 나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길을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다. 한곳을 여러사람이 다니게 되면 자연히 길이 생기서 나중사람은 그 길을 따라가면 되도록 되어있다. 길은 본래 다니기 쉬운 곳을 따라 저절로 생기기 마련인데 때로는 일부러 길을 만드는 일도 있다. 저절로 생긴 길은 자연적인 도로이지만 일부러 만든 길은 다니기 쉽게 마련된 인위적인 도로다.

윤리적인 도는 사람이 생활해나가는 가운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길이다. 모든 생물에는 본능이 있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즉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성(異性)을 그리워한다든지 하는 것은 본능에 속할뿐 그것을 도리라고는 하지 않는다. 도리라고 하면 본능적 욕심을 억제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여러사람이 살아나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활을 조정하는 것으로 그것은 사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는 오히려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수가 많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사실(事實)에 대해서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라는 당위(當爲)의 상태다. 다른 동물은 본능이라는 사실만 있고 도리라는 규범은 없다. 이 규범의식이 있는 것이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달라서 윤리적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윤리규범으로서의 도리는 대개 옛날의 선각자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공자는 인간의 도리로서 인(仁)과 효(孝)를 강조하였는데 인은 곧 사랑이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인(仁)인데 특히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효라고 한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하필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동물들도 새끼에 대한 사랑이 지극해서 어떤 때는 사람보다 더 깊을 때도 있다. 그러나 동물의 새끼사랑은 그저 본능에서 우러나올 따름이요 아무런 가치의식(價値意識)이 없다. 사람은 자식을 낳으면 본능적으로 그를 사랑하게 되는 동시에 사랑하여야 할 까닭을 의식하고 있다. 어린 것이 태어났으니 이것을 보살펴주어야 하겠다는 의식이 있고 그 아이가 더욱 잘 자라게 하려면 무슨 방법을 써야 하는 것까지 생각한다. 그것이 인(仁)이다. 그 인의 사상을 하필 부부와 자식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까지 미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물은 자기 새끼를 아무런 의식없이 본능적으로 사랑할 뿐 그 사랑을 다른 동물에게 미쳐야겠다는 생각은 없다. 여기에 인간의 윤리적 규범으로서의 도리의 높은 가치를 알 수 있다.

인간은 본능적 사실에서 벗어나 규범적 가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한걸음 더 나아가 천지우주의 근본적인 원리로 대도를 깨닫게 된다. 윤리적인 도리는 시대와 장소에 대한 제약이 있지마는 천지우주의 근본원리로서의 대도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영구적이고 보편적인 종교적인 진리로 이것은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래로 많은 수양을 한 성인이라야 이 대도를 깨닫게 되는게 대도를 깨닫게 되면 그 까닭은 대도와 깨달은 사람이 합치하여 하나를 이룬다. 이와같이 대도를 깨달아 대도와 일치를 이룬 사람은 도통(道通)한 사람이라고 하고 도통하기에 노력하는 것은 수도(修道)라고 한다.

중용(中庸)에 「하늘의 명령을 성이라 하고 성에 따르는 것을 도라 하고 도를 닦는 것을 교라고 한다」(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라고 하였는데 이는 성선설(性善說)에 기초하여 인간의 성품을 선량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 선량한 성품에 따르는 것이 도라고 하였다. 인간의 성품을 본래 선량한 것으로 볼때에는 사람이 도를 지키는 것이 자연의 성품에 따르는 것이므로 특별한 교육이 필요없을 것 같으나 그 성품에 따르게 하려면 인간의 착한 성품을 먼저 개발시켜야 하는데 그것이 교육이다. 이것이 중용에서 말하는 교육의 필요성이다. 교육하지 않으면 규범의식을 일으키지 못한다. 또 인간의 성품이 본래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악설(性惡說)의 입장에서는 더욱 더 규범의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공자(孔子)는 우주의 본체로서 하늘(天)을 중요시하여 그 천에서 도가 나온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노자(老子)는 우주의 본체 그것이 바로 도라고 생각했다. 유가(儒家)에서 하늘을 중요시하는데 반해 도가(道家)에서는 하늘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도로 도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연(自然)이라고 하고 이 자연을 본받아서 도가 있다고 하였다. 도덕경(道德經) 제25장에 「사람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人法天 天法道 道法自然)이라 하였고 또 도덕경 42장에 「도가 하나를 낳고 하

나가 돌을 낳고 돌이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을 낳는다(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으로 도가에서는 도를 우주의 근본원리로 보는 것이 확실하다.

전경 공사 1장 3절에 「상도」(常道)와 「상생(相生)의 도」가 나오고 전경 교법 2장 22절에 「도를 닦는 자」가 나오고 권지 1장 15절에 「상제의 도력」이란 말이 나오고 예시 1장 45절 「도통군자」라는 말이 나온다. 증산께서는 본래 구천상제의 자리에 계시므로 대도(大道) 그 자체이며 특별히 대도를 깨달을 필요가 없으시다. 그러나 인신으로 화하였으므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 하기 위하여 도를 닦으셨고(수도) 그 수도를 말미암아 도통하시어 도력을 가지시고 천지개조의 능력을 펴셨다. 상제를 믿는 사람도 수도를 통하여 도통군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특히 수도에 있어서 단전연마(丹田鍊磨)가 강조되고 있는데 수도는 도통하는 것이 목적이요 도통한다는 것은 우주의 본체인 대도에 통하는 것 다시 말하면 대도와 합치하는 것이요 우주의 본체는 곧 상제님이시니 도통한다는 것은 곧 상제님과 합치는 것이다.

상제님은 천지인을 주관하시면서 또 인존시대를 열어 우리 인간도 천지인을 주관할 수 있게 하셨다. 천지인은 모두 일기(一氣)의 소생이요 그 일기가 대순(大巡)하여 천지현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도통하기 위해서는 기의 대순이 잘되어 천지인(天地人) 사이를 자유자재로 왕래하여 육체와 생명과 신명이 영화(靈化)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영통(靈通)의 세계다. 영통하기 위해서는 기(氣)의 단련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기가 많이 결집되어 있는 곳이 바로 단전이므로 수도에는 단전연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수도하는 방법에는 주문을 송독하는 공부와 수련과 치성을 드리는 기도 등이 있는데 주문을 송독할때나 기도를 할 때는 늘 기운이 단전에 머물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V. 경천·수도의 현대적 의의

21세기 즉 새로운 천년대를 맞이할 날이 곧 오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나간 20세기 또는 지나간 천년대를 한번 반성해보고 그러므로써 새로운 세기와 새로운 천년대를 준비하여야 한다.

21세기는 두 번이나 세계대전을 치렀으며 지난 천년대는 약육강식(弱肉強食)의 시대였다. 그러므로 21세기는 무엇보다도 이와같은 전쟁의 처지에서 인류가 벗어나서 인류의 안전과 평화를 되찾아야 할 세기이다. 인류가 이와 같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게 된 이유는 인류가 자기의 본 고향을 떠나 밖으로 떠돌아 다니게 되는데서 유래한다. 사람은 마음을 떠나고 가정을 떠나서 사람들은 전부 밖으로 나가 돌아다녀 그 밖에서 무자비한 생존경쟁을 벌려 남을 미워하고 남과 싸우게 되었다.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이 급선무가 될 것이다.

1. 인류는 안으로 돌아가야 한다.

오랫동안 인류는 서방문물의 세례의 받으면서 너무 밖으로만 돌고 안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길을 잃고 헤매이는데까지 왔다. 무엇이던지 안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세가 없고 그저 덮어놓고 밖으로만 떠돌아서 이제 와서는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단계에 다다랐다.

하느님이나 신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일찍이 동방사람은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내부를 깊이 들여다보는 가운데 신이 바로 자기 마음 속에 계신 것을 믿고 그 신에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하여 사색과 사색을 거듭하여 결국 도통진경에 이르러 안심입명하게 되었다.

그러나 서방사람은 신이 밖에 계시다고 믿고 그 신을 찾아서 밖으로 밖으로 헤매었다. 이쪽 언덕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가보았으나 거기에 신은 계시지 않고 다시 더 나아가서 저쪽 언덕에 이르러 보아도 신은 계시지 않아 결국 신은 없다는 무신론(無神論)이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유사 이래 죽 신이 계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서방문명이 근본적으로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모순을 해결하려는 의도로 생긴 것이 지금까지 신은 계시었으나 지금은 신이 죽었다는 사신론(死神論)이다.

그러나 동방사람은 꾸준히 신을 안에서 찾아왔다. 서양의 기독교가 태초에 신이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 동양의 유교에서는

천명이 인간밖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성품이 곧 천명이라고 생각하였다. 서양사람은 하느님의 창조의 자취를 찾아서 밖을 헤매여 많은 자연 법칙을 발견하였으나 하느님 자체는 찾지 못하였다. 천인일체(天人一體)의 동양전통사상을 새롭게 개발하여 사람이 하느님을 모시고 있고(侍天主) 사람 이것이 하늘이고(人是天) 사람이 곧 하늘(人乃天)이라는 동학의 교의도 하느님을 안에서 찾고자 하는 노력이다. 증산은 스스로 상제가 하강한 것을 선언하여 「내가 바로 하늘이고 내가 곧 하늘이다.」(我是天, 我乃天)는 내재적 신격(內在的 神格)을 부상시켰다.

그러나 서양이 신을 밖에서만 찾고자 하는데에서 불충분하듯이 동양이 신을 안에서만 찾고자 하는 것도 불충분함을 면치 못한다. 지금 서양문물의 범람으로 모든 것이 외향적(外向的)으로 나가고 있는 추세를 무조건 배격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면서도 동양의 내성적(內省的)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느님이나 신이 어디 아니 계신 곳이 없는데 밖이다 안이다 하고 일방적으로 따질 일은 아니다. 다만 지금까지 너무 외향적으로만 흐른 풍조를 바로잡는 의미에서 안으로의 사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경천수도 사상에 있어 수도의 중점을 인성의 깊은 수양에 두는 것은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2. 인류는 참된 행복을 찾아야 한다.

인류는 만물의 영장인데도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돌보지 않고 스스로 동물의 자리로 내려앉아서 동물적 욕망을 채우는데만 급급하였고 그 동물적 만족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고 있다. 동물적 욕망이라는 것은 그저 생물적 본능을 충족시키는 것뿐이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동물적 욕망에 만족할 뿐 아니라 그 동물적 욕망을 더욱 확대시켜 그 동물적 욕망을 최대한으로 만족시키고자 하는데서 오히려 불행을 자초하고 있다. 인간은 하나의 생물이므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식주의 보장이 필요하기는 하나 다만 의식주의 생활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간적 행복을 달성한 것은 아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라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간만이 누릴수 있는 진선미의 가치를 맛봄으로서 비로소 인간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인

간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진선미의 인간적 행복을 누렸다 하더라도 인간이 혼자 살지 못하고 집단생활을 하는 이상 사회집단 내에 있어서의 자유와 평등과 평화가 달성되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을 누렸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류는 지금까지의 동물적 만족에서 행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동물적 욕망은 가급적 줄이고 인간적 가치,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두는 행복을 찾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동물적 욕망을 증가시키면 이를 충족시킬 물질적 자원이 부족해서 도저히 만족을 얻을 수 없으나 인간적 가치를 만족시키고 사회적 가치를 만족시키는 정신적 차원은 무한량이므로 여기에서 인간은 충분한 행복을 맛볼 수가 있다.

경천수도는 물질적 만족보다 정신적 만족을 주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천수도로 도통이 되면 스스로 하느님을 모시는 기쁨이 한량없을 뿐아니라 나아가서는 스스로 하느님이 된 무한대의 희열속에서 살 수가 있다.

경천수도는 우리가 경천하고 수도하므로써 도통하여 선경에 살게되는 방법이다. 선경에서는 의식주의 충족은 물론이요 진선미의 가치도 충분히 발휘되고 자유 평등 평화의 사회정의도 충분히 보장된다. 몸은 지상에 있으나 천지인을 관통하고 다만 인간과 교제할 뿐아니라 천지신명과도 교통되고 동서고금의 영령과도 교류되어 늘 환희에 찬 영통생활을 할 수 있어 그야말로 무량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늘이나 신은 결국 우리의 안에 계시고 그 하느님의 높으심과 같이 우리도 높게 살 수 있는 것이 도통선경이다. 여기서는 모든 원한이 풀려 만물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여 그야말로 낙원을 이룬다.

하느님을 밖에서 찾는다든지 또는 동물적인 욕망에만 치우치는 오늘의 병폐를 경천수도로 극복하면 우리는 하느님을 우리의 안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동물적 만족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행복인 도통인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21세기를 앞둔 오늘에 인류가 나아가야 할 진정한 행복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